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47

2015. 3. 29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6:8)

오늘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오늘의 주요기사

- 2 사명 특집
- 3 예배드라마의 의미
- 4 사역 간증
- 5 목회 칼럼
- 6 믿음의 책

교회일정

- 3.29(주) 종려주일, 입교세례식
- 4.3(금) 성금요일예배
- 4.5(주) 부활절 송파구 연합예배,
부활절 예배드라마
- 4.6(월) 정기당회
- 4.7(화) 예친사 1학기 개강
- 4.12(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tv.org

주님의교회



2015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올해 부활절에는 주님의교회의 전
통인 예배드라마, 그 네 번째인 “사
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진다. 예년과 또 다른 감동과 은
혜를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연기자
30여 명, 의상 10여 명, 무대와 소품
준비에 15명 등 연 100여 명의 성도
가 참여, 땀 흘려 준비해왔다. 지난
22일에는 무대 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26일 목요일에는 그동안
준비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의상
리허설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예
배드라마의 의상은 되도록 전년도
것을 재활용했으며, 예년과 달리,
시대의 고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지금 여기의 우
리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새롭게 해
석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의 이야기

임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그렇
듯,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디 오래 공들여
준비한 이 예배드라마를 통해, 많은
성도가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
새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큰 역사를 이끌어 온 최성진 안수집
사의 말이다.

함즐함울

성금요일 예배

현악과 국악이 함께하는 가상칠언 주제 예배

4월 3일의 성금요일 예배는 “십자
가에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드
러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
씀하신 7가지 말씀을 뜻하는 ‘가

상칠언’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사명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는 내
용이다. 각 말씀에 대한 설교 사
이에, 찬송과 현악 연주, 판소리

와 국악 연주, 한국무용 등으로
구성되며,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함즐함울

2015년 특집 | 사명과 함께 하는 삶

직장도 사명을 펼치는 작은 무대

얼핏 보아도 어딘가 영국이나 미국 신사 같이, 단정한 양복 차림에, 단단한 체구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인상을 준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십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뒤 사업차 귀국을 했으나 여전히 1년에 두세 달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박영식 집사를 만났다. 교회 안에서 교제의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얘기를 시작한다. 상당한 달변이다.

직장이야말로 사명을 펼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미국과 같은 여러 외국의 식품의약품에 등록하는 일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원래 약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계통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어 시작하게 되었지요. 굳이 비유하자면 특허청의 변리사 같은 일입니다. 해외 거래처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실을 관찰하다보

니 기독교인으로서 경제관이 분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공동체적 가치라고나 할까.”

그이는 이런 생각 끝에 자신만의 기독교 경제론을 정립했다.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은 필요하되, 이웃과 나누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상생을 꿈꾸는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직장에서도 실현하고자 했다. 열 명 안팎의 규모이긴 하지만, 아침에는 기도로 업무를 시작하고, 매월 첫날에는 예배를 드린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이의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인사말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그 사무실 한켠에,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었다면서요.

“말로만 선교, 말로만 전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생활의 바탕이 이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면 머물 곳, 일할 곳이 마땅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나누어 그분들이 오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기기는 물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이의 사무실은 테헤란로에 있으니,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터이다. 그이는 이처럼, 시선을 더 높고 넓은 곳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시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구본을 늘 옆에 놓고 있어야 한다고 기업을 토한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기독교 가치관도 전달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발견하고, 그 일의 의미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그이의 가치관인 셈이다. 굳이 이해하자면 미국식 실용주의에 기독교적 가치관의 깊이로 더한듯한 느낌이다. 평신도선교에도 관심이 많다. 그의 달변이 때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면서도, 최선을 다해 기독교 가치관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견을 달기 어려웠다.

함줄함울

> '2015년 교회 주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삶 가운데 사명의 본보기가 될 사례를 발굴하여 미니 인터뷰 형태로 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2

農事(농사)와 관련된 節氣(절기)중 初實節(초실절), 七七節(칠칠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곡물의 첫 이삭 한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레위기23:10)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初實節(초실절) :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무교절(니산 월 15~21일)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이다.

② 七七節(칠칠절) :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다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해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후로 (성령강림절)로 지켜지기도 하였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初(처음 초): 衣(옷 의)를 변형시킨 耜(옷의 변)과 刀(칼, 무기, 도구)를 뜻하는 刀(칼 도)가 결합되어 ‘옷을 만드는 일은 가위로 재단하는 것이 첫 순서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實(열매 실): ‘집 또는 지붕’의 뜻이 있는 宀(집 면, 갓머리)에 ‘돈뎌미, 꿰다’를 뜻하는 貫(돈뎌미 관, 꿰 관)을 합하여 ‘집에 돈뎌미가 가득 차있으

니 노력의 값진 열매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七(일곱 칠) : 옛날 셈법을 보면 하나에서 넷까지는 一 二 三 처럼 선으로 표시하였고 홀수인 五 七 九 는 구부러 표시하였고 六과 八 은 벌려 표시하였다. 여기서 一 은 다섯 손가락을 위로 편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섯 손가락을 위로 펴고 두 손가락을 옆으로 펴 합하니 일곱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節(마디 절) :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𠂔(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가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17



어린이들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작은 천사들 15기 아기정원 입학식에서 작은 천사들 가슴에 이름표 달아주는 설렘 가득한 섬김의 손

> ‘섬기는 손’ 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2015년 예배드라마의 의미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

이번 예배드라마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담당 교역자인 김용웅 목사를 통해 이번 예배드라마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사랑’이라는 주제이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드러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현재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적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세력은 멋지게 포장된 문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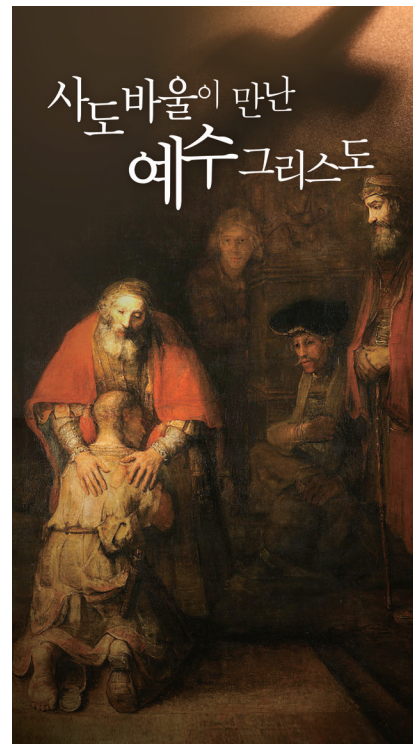
번 예배드라마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무슨 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고 방심하는 게 큰 문제점이겠지요.

한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도대체 ‘만남’이란 무엇이지요? 이번 예배드라마의 푯대가 되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입니다. 여기에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 된 본성을 품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에는 예수님의 남성성, 여성성의 제한을 넘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자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순교를 당한 로마 시대와 우

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무대 위에서는 로마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무대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 시대 우리의 타락한 세상 문화를 동일시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드라마는 결코 옛날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대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배우들의 의상이 그 시대의 고증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살짝 느낌만 나게 한 이유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이야기임을 강조, 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부르게 될 찬양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찬양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한 방법이자,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순



전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 특별예배 가운데 분명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바울과 같은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해외 선교

2015년 비전트립 접수

주님의교회 2015년 비전트립 참가자 모집이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케냐의 4개국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시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빈롱성에서 의료, 집짓기, 아동사역 등으로 진행되며 우리교회 겨자씨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도 탐방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은 RIDE M 수련회와 KCC 태권도 훈련 참가 등이 계획되어 있다. 헝가리는 헝가리 개척교회 청년수련회 참가

및 종교개혁지(헝가리, 오스트리아 빈, 폴란드 아우슈비츠 등)를 탐방할 예정이다. 케냐는 의료 및 우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아래는 국가별 기간과 모집인원 그리고 현재 신청자 수이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계속 모집을 하게되며 참가희망자는 해외선교분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훈 총괄팀장/해외선교분과

	기간	사역	모집인원	신청자 (3/15 현재)
베트남	7/29 ~ 8/3	의료, 집짓기, 아동사역	25	17
키르기스스탄	7/5 ~ 12	RIDE M 수련회 참가, KCC 태권도 훈련 참가	20	7
헝가리	7/20 ~ 30	헝가리 개척교회 청년수련회 참가, 종교개혁지 탐방	15 (청년 10인)	10 (청년 6인)
케냐	7/31 ~ 8/9	의료, 고아원 사역	15	22

장학위원회

2015년 상반기 장학금 집행

2015년도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전반기 장학금이 지난 3월 19일 총 44,243,697원 지급되었으며, 4월 중으로 집행예정인 정신여자고등학교 연간 대외 장학금 29,440,000원 중 50%인 14,720,000원이 지급되면, 전반기 총 58,963,697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장학위원회 예산은 총 128,800,000원으로, 전반기 장학금은 지난 3월 19일 대학생 19명, 고등학생 5명(24분기 고등학생제외), 장로신학대학교 대외장학금(25,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주님의교회 장학금은 교우들의 소중한 헌금에서 조성되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참여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로 5인과 교육담당 교역자 포함 6인의 위원, 실무

맡는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장학금 신청은 1년에 2회(2월, 8월)에 있고, 주보와 예배시간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대학생 대상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납부 영수증 금액 전액을 지급키로 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예산금액보다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많아 영수금액의 70%를 지급하였다.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지만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지면을 빌어 사과를 드린다. 교회의 정해진 예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양보를 부탁드린다. 주님의교회 장학금은 생활자금 지급이 아닌 학자금 지급이므로 재학 중인 학교 및 타 기관에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중복해서 교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도 함께 알려드린다.

권성호 안수집사/장학위원회

학원선교 세미나

3월17일(화) 소예배실에서 학원선교부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사춘기 자녀의 이해" 주제로 하이패밀리 김향숙 원장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정신학원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어머니, 기도어머니들에게 청소년세대를 이해함으로 정신학원 딸들

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학원선교부는 정신여중 수련회 인성 시간에 학생들과 만나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어머니 사역과, 정신여고 기도어머니 시간에 학생들과 만나 수업시간에 나눌 수 없는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가르치는 기도어머니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홍신영 집사/학원선교부



어린이 예수친구사역 개강

2015년 3월14일(토) 어린이예수친구사역이 개강하였다. 어린이예수친구사역은 성인 예수친구사역과 동일한 흐름 속에 있지만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번에 어린이예친사 1단계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3-6학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기초로 활동과 토론을 통한 제자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어린이 예친사 속 캐릭터 산이, 한결이, 서현이라는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JFriends가 떠나는 모험이 기대된다. 개강일에는 박원호 담임목사님이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

자들의 삶에 있어야 할 실질적인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다. 어린이들이 예배만 잘 드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춰 나가는 첫 걸음을 딛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린이 예수친구사역은 1학기 10주간 토요일 오전10시-12시 초등부실에서 이루어진다. 아이스브레이크, 찬양, 저널발표, 암송, 메시지, 소그룹 등 다양한 활동과 토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고하는 어린이를 길러낸다. 작은 시작이지만 어린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길러지길 소망한다.

전보영 목사

사역간증

새신자를 전도여행으로 이끈 예배드라마

2015년 부활절 예배드라마에 참여하게 된 황희선 성도입니다. 처음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를 보고 저도 사명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한 해를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박원호 목사님 설교 중에 예배드라마 배우를 모집하는데 초신자가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새신자가 가면 환영 받고, ‘지나가는 행인1’이나 시켜주면 다른 사람 연극하는 거 보면 되겠구나! 그래 이거다! 가서 심부름 같은 봉사나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만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 한번 나와봤으니...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연극이 아니라 예배라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내내 망설여졌습니다.

두 번까지만 가보자는 마음

으로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된 뒤 점점 예배드라마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궁금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전도사님 가족, 권사님, 집사님들 보통 내공이 아니고는 이 예배드라마를 할 수 없겠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할에 대한 궁금증과 만남의 즐거움을 가지던 중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즈음 신랑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평소에 교회일은 어머니, 주부들, 시간 여유로운 분들이나 할 수 있는거라 생각하느 남편과 진지하게 참여해보지않겠냐고 건네보았습니다.

흔쾌히 한번 참석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대답에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겠지요. 대본이 나온 뒤 신랑이 재미를 느끼며 같이 연습하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가

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기에 이번 예배드라마는 저희가 앞으로 사명자가 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랑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전도사님 말씀에 우리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멘트 하나를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기도했고, 떨지 않도록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흥진 성도와 함께 하며 매주 두 번씩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즐거운 연습시간을 통해 때로는 지치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던 과정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연습을 통하여 사랑의 표현도 하게되고, 무뎠던 무관심하던 저에게 상대역인 남편에 대해 애정 어린 눈빛 연습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변해가

는 제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기도가 더욱 나오더군요. 연기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부담감이 줄고 어려움이 없어져 갔습니다.

함께 두세 달 같이 힘주시고 이끌어주신 전도사님 부부, 같이 준비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감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부부를 이 예배드라마를 통해 사도바울의 생애와 전도여행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사히 은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선 집사

목회칼럼

깊은 슬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요사순절 기간은 깊은 슬픔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넘치는 기쁨 속에 가슴 아픈 슬픔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어진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경말씀을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4가지로 이해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이해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고, 그 기원과 이후를 잠시라도 묵상해 본다면 이러한 이

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해는 ‘죽음’ 역시 생명의 하나의 과정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영생의 의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생명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25:46 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게는 두 가지 길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죽음 이전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27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음에도 여전히 “죽음”은 언제나 인생의 큰 문제로 자리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자의 몫으로 남겨진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죽음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염려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정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한번은 겪게 될 죽음의 과정이 그 누군가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서로를 위로 합니다. 죽음도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가 맞게 되는 죽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조광민 목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기독교의 역사 14

김마리아 공판 기록

무릇 조선인이란 일본의 신민이 된 이상에 일본의 기반을 벗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국적(國賊)이라. 더욱이 김마리아는 여자로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인격과 체질이 비범한 천성을 가졌으므로 그 대답한 태도와 거만한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 더욱 가증한 것은 본직에게 심문을 당할 때에 거만하게 “나는 일본의 연호(年號)는 모르는 사람이라.”하면서 서력(西曆)의 천구백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눈에 일본 제국이라는 것은 없고 일본의 신민이 아닌 비국민적(非國民的) 태도(態度)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대역무도한 무리에게는 특히 추상열일(秋霜烈日) 같은 형벌을 내려 그러한 인물을 박멸치 아니하면 도저

히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 원래 조선인은 몇 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교묘한 처신으로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젖은 무리라. 이 사대사상은 조선인의 통폐라고도 할 수 있다. 피고 김마리아는 인격수양과 여자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그 회의 취지라고 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말은 오늘날은 김마리아와 같이 말을 하나 여러 피고 중 그 전에 경찰 관리에게든지 본직에게든지 공술한 말을 보건대 “조선 사람으로 조선의 독립을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남자가 활동하는데 여자가 활동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대답한 것을 보아도 범죄의 증거는 확실하며 (“대한 애국부인회의 제1회 공판 방청 속기



김마리아 판결문

록 『동아일보』 1920년 6월 11일; 김마리아 “『독립신문』 1920년 6월 24일)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 귀한 원고를 기고해주고 계시는 이희천 선생님이 지난 3월1일 정신여고 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제2회 쑥쑥이 독후감대회

도서사역팀에서는 “독후감 노트 쓰기”를 주제로 2015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쑥쑥이 독후감대회”를 개최한다. 초등생부터 중1까지, 도서사역팀에서 제공하는 노트에 꾸준히 독후감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도서사역팀 김천옥 집사 (010-3999-8183)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기나들이



2015년 2월 15일 3부 예배
권은준 아기

1.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자녀 되게 해 주세요
2. 어느 곳에 있던지 누구 만나던지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와 자녀 되게 해 주세요
3.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자녀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빠 권광웅, 엄마 이지혜, 2014년 11월 1일생



2015년 2월 15일 3부 예배
김요한 아기

1.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선대받기를 기도합니다
2.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인격이 성숙하며,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3. 믿음직한 친구, 참된 스승, 선한 영적지도자, 축복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김범수, 엄마 강은혜, 2014년 11월 11일생



2015년 3월 8일 3부 예배
백은재 아기

1.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3.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빠 백영민, 엄마 성은희, 2014년 9월 15일생



2015년 3월 15일 3부 예배
오혜련 아기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세요.
2.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해 주세요.
3.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아빠 오제연, 엄마 이민아, 2014년 11월 11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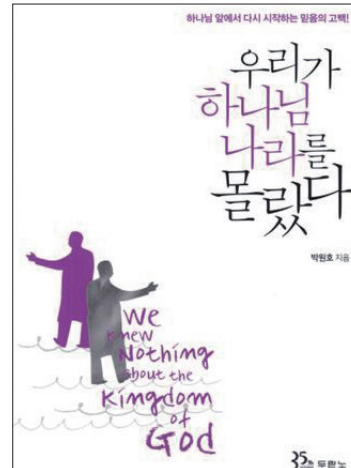
2015년 3월 22일 3부 예배
박규연 아기

1.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2.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3.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 다윗의 용기와 겸손으로 무장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빠 박준형, 엄마 김혜진, 2014년 11월 13일생

믿음의 책 | 박원호 지음, 두란노 펴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지켜낸다.
”

주님의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원호 목사의 새 책이 나왔다.

당신의 삶이 공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의 근본이며, 믿음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초대한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은 지은이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수록 이 신학과 목회만이 미래의 한국 교회의 대안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12단계 성경공부, 예수친구사역 등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론서로서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구성원과 관련 기관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 해외선교 비전트립팀을 모집합니다.

대상 : 케냐 (7/30~8/9, 15명) 헝가리(7/20~30, 청년10명 포함하여 15명) 키르기스스탄(7월초, 20명) 베트남(7/29~8/3, 25명)입니다.

접수 : 3/29일 마감입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일시 :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1:00 5층 찬양대연습실

▶ 2부, 3부예배 영어 동시통역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최영재 집사(010-3155-7761)

▶ 도서기증 캠페인

참고서, 신앙도서, 아동도서, 기타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기간 :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장소 : 1층 부스

문의 : 신영백 안수집사(010-2864-8320)

3월 당회 결의 사항

1. 통일선교분과 김주윤선교사 해임 건은 2015년 말까지 지원 후 해임하도록 하다
2. 해외선교분과 한진혁 견습선교사 지원건은 2년 월 200불을 지원하기로 하다.
3. 평양노회제출 부교역자 계속청원건은 부교역자명단 전원 청원하기로 하다.